

# 덴마크의 산업의 제도

편집실

인어상과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모국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인구 약 515만명의 소국가이지만 광대한 초목지대를 보유하고 있다.

덴마크의 산업보건제도를 정하고 있는 “Working Environment Act” 가운데에 산업의에 해당하는 기술내용이나 관련된 규정이 일절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산업의에 해당하는 의사수도 매우 적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덴마크의 산업의에 관한 것은 개괄적인 특징만을 간단히 언급한다.

## 1. 산업의 계약, 산업의의 실태 및 활동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의”라고 하는 존재가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덴마크 산업보건 활동은 “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Service”라고 하는 국가 산업보건서비스 기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조직의 멤버로서 소위 말하는 산업의에 해당하는 산업보건 전문의사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 서비스 기구의 상급기관은 노동성(勞働省)이

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단일기업과의 개인적 계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산업의가 기업에 채용되고 있는 형태는 취하지 않고 있다. 물론 기업이 산업의를 선임하는 기준에 관한 법적규제 등도 전혀 없다.

“Working Environment Act”에 나타나 있는 산업보건활동은 직종 중에서 지상(地上) 업무를 제외한 공수(空輸) 업무 종사자, 해운업무 종사자, 어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덧붙여서 산업보건활동적용 노동자는 오래전 통계에 의하면 약 13%(1984년)로 북구제국 가운데에서도 낮은 수준에 있는 실정이다. 또, 산업의에 해당하는 의사수도 같은 해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불과 6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보건서비스 기구는 현재 전체 약 750명의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계획입안과 법제화를 담당하는 감독부, 연구와 정보교류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보건연구소, 현장을 시찰하며 감독과 지도를 업무로 하는 14개 지역 감찰부의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보건 전문의사들은 이들 부서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활약하고 있다.

## 2. 산업보건 경비

산업보건서비스 기구의 1992년 연간 총 예산은 3억 2,480만 Krone(덴마크 화폐단위)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가 60%를 차지한다. 단순하게 노동자 1인당 산업보건 경비를 계산하면 약 111 Krone 정도가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보건 활동이 상기 서비스 기구에 의해 일원화되어 있

는 까닭에 기업내 보건조합 등 민간차원에서의 자금운용은 없다.

이와같이 이 나라의 산업보건활동은 국가에 의하여 일원화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산업보건서비스 기구인 "Director General"은 본 서비스가 유럽제국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삶은 거대한 조각 그림 맞추기에  
견줄 수 있습니다.  
조각 그림들 하나하나마다  
제게 맞는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듯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제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엔가 속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눈에 띄는 대로 자리를  
잡고는 그자리에 자신을 맞추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은  
서로 이가 맞지 않는 조각으로  
가득차게 되고,  
그들은 결국 참된 모습에는  
영원히 다다를 수가 없게됩니다..

‘명구절을 찾습니다’ 중에서